

4월 총선 야권연대 협상 스타트

단일화 최대 30곳... 아직은 '기싸움'

민중통합 "당선 담보 돼야... 무조건 양보 안된다"

통합진보, 광주 서울·북울, 순천·여수 갑 등 관심

민중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 협상대표단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장원섭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갖고 야권연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8~19일 양일간 협상을 계속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현 수석부대변인과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야권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19대 총선 야권연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주말 내내 계속 논의했으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빠른 시간 안에 타결을 목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처럼 후보단일화 방안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이번 주 내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견해차로 신경전을 벌인 '협상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주 내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 측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통합진보당은 20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태도이다.

야권연대 협상의 필수 항목인 정책연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공개적으로 후보단일화 지역이나 지역 수를 거론하

진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최소 20곳 이상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수도권과 영·호남 등의 30여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관악을(이정희 대표), 노원병(노회찬 대변인), 은평을(전호선 대변인), 도봉갑(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의 선거구가 관심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삼성정 공동대표가 있는 고양 덕양갑이 대표적이며, 수원 장안, 광명을, 하남, 이천·여주, 파주 등도 오르내린다.

영남의 경우 부산은 영도와 해운대·기장갑, 울산은 동구와 남구들이 통합진보당으로의 단일화를 바라는 지역이다. 경남은 김기갑 의원의 사천, 강병기 전 경남부지사의 진주,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의 창원갑 등이 오르내린다.

최고의 관심지역인 호남에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19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한 상태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중 당 내외에서 다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후보가 있는 광주 서울(오병운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광주 북울(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공동대표), 여수갑(강우주 전 여수시의원), 순천(김선동 현 국회의원), 광양(유현주 전 전남도의원), 전주 완산을(이광철 전 국회의원) 등을 야권연대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야권연대 지역이나 수에 대해 합구하고 있지만 최소 20곳을 염두에 둔 통합진보당의 기대는 지나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단일화를 하면 당선이 담보돼야 한다"며 "무조건 양보를 바라는 것은 협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7일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권연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문성근 최고위원, 협상대표로 박선숙 의원을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현역 인위적 컷-오프 없다"

민중통합 우윤근 공심위원 인터뷰



4·11 총선을 앞두고 민중통합당의 컷-오프(후보 압축)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혁 공천을 내세운 공심위가 컷-오프를 통해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제시할 것인지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우윤근 공심위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컷-오프 일정과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다.

-컷-오프는 언제 마무리되나.

▲이는 29일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6일 정도를 예상했으나 조금 늦어졌다.

-여성 전략공천 지역과 야권연대 지역도 이날 발표되나.

▲이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상황이다. 만약, 일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이나 야권연대 대상 지역으로 검토될 경우, 29일 컷-오프 결과 발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호남지역 국회의원의 컷-오프 탈락률이 예상되고 있다.

▲절대 인위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컷-오프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 공심위의 정확한 심사를 통

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접점을 보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3차 대결 결정 역시 공심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컷-오프 여론조사에 모든 예비후보가 대상이 되나.

▲서류심사를 통해 정채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파렴치 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후보들은 제외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 일단 면접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을 끝내고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받아 최종 심의에 나설 것이다.

-국민 경선은 언제 실시되나.

▲일단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와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은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15일까지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공심위의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년 정치캠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통합당 청년대표국회의원선출특별위원회 주최로 "청년비례 청년정책추진"이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24일~26일까지 청년정치캠프를 진행해 경선 참가자 16명을 추린 뒤 다음달 9~11일 투표를 실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최종 선발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최소 3~4명 탈락설

■ '컷-오프 괴담' 잠 못 이루는 현역들

민중통합당의 컷-오프가 사실상 이번 주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당 내에서 컷-오프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데 각종 컷-오프 관련 기준마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때문이다.

컷-오프 괴담은 공천을 신청한 16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광주 현역 8명 중 6명
예비후보에 밀려 긴장
명의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소한 3~4명이 컷-오프에

서 탈락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심위가 개혁 공천을 명분으로 정채성 등에서 논란이 있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을 과감하게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구에서 표발을 갈고 있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컷-오프를 앞두고 일부 보좌진을 중앙당에 보내는가 하면 언론 쪽에 공심위의 분위기를 묻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에 불리한 컷-오프 룰도 걱정거리다.

실제로 민중통합당은 컷-오프 여론조사 규정에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감점하는 '인지도 핸디캡' 항목을 설정한데다 각종 다면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 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당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결과,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예비후보에 밀리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의 물갈이 여론도 여전히 확실성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광주 또 국회의원 핵심 관계자는 "컷-오프에서 탈락한다면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주 내에 컷-오프 결과가 어느정도 드러날 예정이어서 속이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김종두



'人事는 萬事' 누구도 못말려~

전복사업으로 부자되세요!

전남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원 RIS 사업단으로서 전복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자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국, 일본 등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복 건제품, 통조림, 수출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완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사무실, 파일럿프랜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통조림, 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등 해외투자 기업체의 국내이전을 준비중인 사업가분
- 청년 취업희망자, 은퇴자·소규모창업 희망자 분
- 재외 동포, 중국인, 일본인 등 해외 기업가 완도에서 사업하실분
- 북경, 상해 정주 수산물 매장 진출을 희망하시는분 많은 연락과 상담 바랍니다

공장전경 통조림·연질캡슐 설비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부설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
 문의전화 : 061-550-1717
 메일 : realgon85@gmail.com · 홈페이지 : www.wapic.co.kr